

국내 산림인증 현황 및 충청남도 활용 방안

표정기

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센터연구원, pyojk@cni.re.kr

- ◇ Post-2020 신(新)기후체제에 대비하여 국가는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부처별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,
- ◇ 산림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반마련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「산림경영인증」에 관한 정책 개발 및 활성화가 예상되어 도내 산림관계자의 다양한 기회창출이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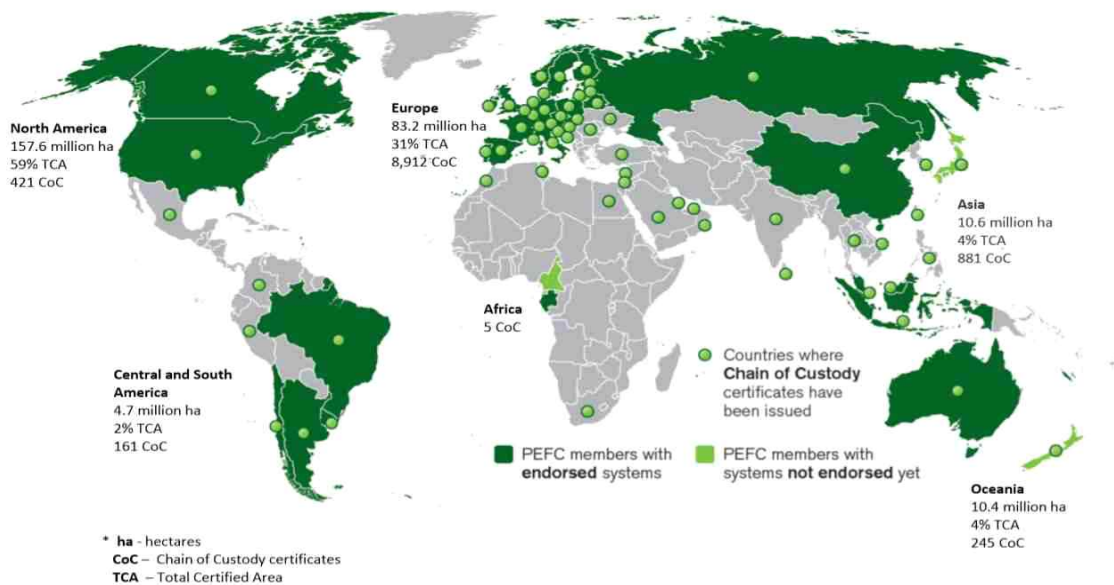
□ 산림인증 배경 및 필요성

-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(UNCED)에서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산림관리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‘지속가능한 산림원칙’ 이행을 위한 산림인증제 주목
- 산림인증제는 산림을 대상으로 환경·사회·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관리 여부를 객관적 평가 기준과 지표를 바탕으로 제3자가 인증해주는 제도
- 국제 NGO를 중심으로 제3자 인증제도(FSC, PEFC)가 출범하면서 산림인증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

- ▶ PEFC(the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):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1999년 창설된 비영리, 비정부 조직
- ▶ FSC(Forest Stewardship Council): 세계 산림의 책임 경영 촉진을 위해 1993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

□ 국내외 산림인증 현황

- 주요 임업선진국은 해외시장에서 자국 임산물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환경·사회적 책임을 위해 자체 국가산림인증시스템을 운영
 - 캐나다(CSA), 미국(SFI, ATFS), 일본(SGEC), 핀란드(FFCS)등
- 우리나라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PEFC 체계의 산림인증을 계획하고 상호인증을 목표로 함
 - PEFC를 기반으로 산림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약 37개국
- 2015년 한국임업진흥원은 한국산림인증제도(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, 이하 KFCC)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완료
 - 인증 체계의 하위에는 FM(산림경영), CoC(임산물 생산·유통)으로 구분



PEFC 산림경영(FM) 및 CoC 인증현황 (한국임업진흥원, 2016. 12. 15.)

- 현재까지 3개 산림에 대해 산림인증 획득
 - 제천 경영계획구(산림조합중앙회, 국내1호), 가리산 경영계획구(홍천 국유림관리소), 교가 경영계획구(삼척 국유림관리소)
- ※진안 선도산림경영단지(산림조합중앙회), 창촌 경영계획구(홍천 국유림관리소)는 심사 중

FSC와 PEFC인증의 차이

FSC	차이점	PEFC
국가별 상호인정이 아닌 단일 인증	성격	PEFC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별 산림인증제도의 상호인정
FSC가 정한 인증표준을 적용	인증 방법	자국 특성 및 여건,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합의에 따라 자체 인증표준을 개발하고 적용
	사용 로고	

□ 국가 KFCC 확대 전략

○ 국·공유림

- KFCC 활성화를 위해 국·공유림 인증 확대
- 산림탄소상쇄 등록지 대상으로 지자체 산림인증 유도
- 녹색자금을 활용한 지자체 산림의 경영계획 확대를 통한 인증 기반 마련

○ 사유림

- 대리경영이 진행되는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경영인증 유도
- 전국 5개 지역(약 8,896ha)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산림인증방안 구상
- 기업 소유의 사유림을 대상으로 산림경영을 지원하고 인증 취득을 유도
- 기업의 사회적책임(CSR)활동과 연계

- ▶ 향후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내 불법 벌채 및 출처가 불명확한 목재와 목제품의 자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산림 관련 규제 성격으로 변화가 예상됨
- ▶ 아울러, KFCC 로고사용을 통해 기업제품의 품질개선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기업의 수익 증가와 경영성과 개선에 이바지함

□ 충청남도 현안에 대한 제언

○ KFCC는 충청남도 산림의 새로운 기회

- 국내·외 산림의 중요성과 산림복지산업의 급성장, 지리적 위치와 국제사회의 녹색통상 증가로 임산업 판로개척 유리, 타 분야보다 높은 녹색 일자리 창출 효과, 타도를 선도하는 산림관리 기술 확보

○ 충청남도 정책방향에 고려되어야할 현안들

- KFCC을 고려한 「제6차 지역산림계획」 작성 필요
 - 도내 주요 산림자원인 ‘안면도 소나무림’의 산림인증등록 추진 필요
 - ※ 2016년 등록된 안면도 산림탄소상쇄 사업대상지는 규모와 경영상황상 KFCC에 적합함
 - 6차 산업과 연계한 도내 임산업의 지원 및 산림탄소상쇄 프로그램 확대 필요
 - 홍성군 선도산림경영단지(1,458ha)에 대한 KFCC 고려 필요
 - KFCC 표준의 7개 기준 46개 지표에 대한 검토 및 도내 산림의 적용 가능성 연구 필요
 - ※ 7개 기준: 생물다양성 보전, 산림생태계 생산력의 유지, 산림 생태계의 건강 및 활력의 유지, 토양과 수자원의 보전과 유지, 산림자원의 유지 및 증대와 전지구 탄소 순환에의 기여,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사회 경제적 이익의 강화 및 유지, 산림 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법적, 제도적, 경제적 체계
- ### ○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해 중요한 녹색자원(산림)의 관리와 경영방식은 향후 성장의 차이를 좌우함
- 도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산림정책 및 아이디어 개발 필요